



2017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인천 어르신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 “사라진 것들, 남겨진 것들”

살아오신 소중한 이야기가 연극이 되고, 영화가 되고,  
살아오신 인천이 무대가 됩니다.



2017.11.10.(금) 오후 1시  
주안노인문화센터 2층 강당

| 공연&상영 | [영화] 독사진, 우정사진, 늦은 익혼사진, 익혼사진  
[연극] 은하수 사진관

| 공연문의 | facebook: 작업장'봄' 검색  
주안노인문화센터 032-867-3312



주최 인천광역시    주관 노인문화재단    작업장'봄'    협력 문화재단연합회    전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안노인문화센터

어르신들이 들려주는 인천이야기 포스터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1시, 주안노인문화센터 2층 강당에서 ‘사라진 것들, 남겨진 것들’의 공연이 100여명의 어르신들이 함께 합니다. 공연은 사진관 ‘은하수 사진관’의 어르신들이 40년 11월 10일 오후 1시 65분부터 시작됩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은하수’의 사진관 운영은 어르신들이 사진 찍고, 사진 보며, 사진 나누고, 사진 선물하는 문화입니다.

공연은 사진관 ‘은하수 사진관’의 어르신들이 <사라진 것들, 남겨진 것들>의 공연입니다. 공연은 오후 1시 50분부터 시작되며, 공연은 2시간 30분입니다.

이 공연은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5일간, 오후 2시와 7시 공연하며, 10월 10일 공연은 4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연극 <은하수 사진관> / 제공 작업장 봄

이 공연은 <은하수 사진관>의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5일간, 오후 2시와 7시 공연하며, 10월 10일 공연은 4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이 공연은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5일간, 오후 2시와 7시 공연하며, 10월 10일 공연은 4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이 공연은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5일간, 오후 2시와 7시 공연하며, 10월 10일 공연은 4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뮤지컬 <보물지도>

본 공연 <보물지도>는 2018년 12월 14일부터 2019년 1월 13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SKO(서울콘서트홀)에서 공연되었습니다. 공연은 14회 공연을 진행했으며, 총 관객 1,2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공연은 14회 공연을 진행했으며, 총 관객 1,2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공연은 14회 공연을 진행했으며, 총 관객 1,2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본 공연 <보물지도>는 2018년 12월 14일부터 2019년 1월 13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SKO(서울콘서트홀)에서 공연되었습니다. 공연은 14회 공연을 진행했으며, 총 관객 1,2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공연은 14회 공연을 진행했으며, 총 관객 1,2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공연은 14회 공연을 진행했으며, 총 관객 1,2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공연 / 관람객 3,000명 / 공연 / 관람객, 공연 / 관람객